

December 19, 2019

## Global

### 생명공학 면화작물 2018년에 15개국에서 재배돼

2018년 생명공학면화 재배 면적은 2,490만 헥타르로 2017년 2,410만 헥타르 대비 3%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는 2018년에 글로벌 시장 가치의 개선과 해충 저항성 및 제초제내성(IR/HT) 후대교배종 면화의 높은 채택률 때문이다.

생명공학면화는 2018년 15개국에서 재배되었으며, 인도(1,160만 헥타르), 미국(506만 헥타르), 중국(293만 헥타르), 파키스탄(280만 헥타르), 그리고 브라질(100만 헥타르)순으로 주로 재배되었다. 또 아르헨티나, 미얀마, 호주, 수단,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라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고 에스와티니를 포함한 10개국에서 생명공학면화를 재배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생명공학면화를 재배하는 농민의 소득 혜택의 증가는 520억 달러였으며 2018년에만 34억 달러였다.

생명공학면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AAA website](#)

## Africa

### 케냐, BT면화 재배 승인

Uhuru Kenyatta 대통령이 의장인 케냐 내각은 5년간의 포장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Bt면화의 상업용 재배를 승인했다. 이 생명공학작물은 케냐 농민들의 면화 생산량을 증가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또한 이 면화는 케냐의 4대 과제인 전세계 섬유 및 의류 생산을 주도하는 것이 목표인 제조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케냐 농업축산연구소(Kenya Agricultural and Livestock Research Organization)의 연구진들은 2020년 3월에 케냐에서 면화를 재배하는 27곳의 농민들에게 Bt 면화 종자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Bt면화는 아프리카 왕담배나방(African boll worm)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개발되었다.

케냐섬유작물부(Fibre Crop Directorate)에 따르면, 케냐의 연간 면화 수요는 36만 8천 베일(bales)이지만, 약 5만여 명의 면화 재배 농민들이 연간 3만 베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파괴적인 아프리카 왕담배나방에 저항성 있는 Bt면화를 도입하면 현재 572kg/ha에서 2,500kg/ha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비용을 40%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에 생명공학면화는 주로 인도, 미국,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브라질 등 15개국에 재배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ate House Kenya](#)